

‘인어공주’ 김서영, 한국 여성 첫 세계대회 메달 사냥 나선다



국가대표 이 선수를 주목하라

광주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담금질을 해온 광주·전남 출신 선수를 비롯한 국가 대표들이 일제히 금사냥에 나선다.

‘한국 수영의 간판’, ‘인어공주’ 김서영(25·경북도청)이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혼영 200m 금메달리스트인 김서영은 한국 선수 가운데 메달권에 가장 근접한 선수다. 김서영은 17일에 광주 선수촌으로 이동해 21일부터 남부국제수영장에서 여자 개인혼영 200m 예선에 돌입, 국내 여성선수 사상 첫 세계수영선수권 메달에 도전한다.

김서영의 강력한 라이벌은 일본 팀이다. 오하시 유리(24)와 오모토 리카(22)가 200m 혼영에 출전, 김서영과 격돌한다.

오하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김서영과 경쟁해,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하다. 당시 김서영이 2분08초34의 한국신기록으로 우승했고, 오하시는 2분08초88로 2위에 올랐다. 오하시는 2017년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여기에 일본의 수영 천재로 불리던 오모토가 합류했다.

경영 종목에서 기대되는 또다른 선수는 임다솔(22·아산시청)이다. 임다솔은 22일부터 예선 일정을 시작한다. 임다솔은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과 동아수영대회에서 연속으로 배영 100m 한국신기록을 달성,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다이빙에서도 메달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남자 다이빙의 우하람(21·국민체

임다솔 배영 100m 메달 도전

남자 다이빙 우하람 메달 사냥

백수연도 여자 평영 출전

김민섭 남자 접영의 기대주

육진홍공단)이 주인공이다. 우하람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1m 스프링보드와 10m 플랫폼에서 각각 동메달을 따냈다. 우하람은 12일 남자 1m스프링보드에 출전한다.

다이빙 불모지 ‘광주의 희망’ 권하림은 13일 스프링보드 혼성 10m 싱크로다이빙 종목에 출전한다. 국가대표 다이빙 부문 최연소 선수인 권하림은 1986년 제 10회 서울아시안게임 체조 남자 평행봉 부문 금메달리스트인 권순성이 권하림의 아버지이다.

권하림은 “지난 4월 국가대표로 선발돼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돼 기쁘다. 광주 소속 선수 중 막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컨디션도 잘 조절해 지금까지 해왔던 만큼 실력을 발휘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 여자 평영을 이끌어온 백수연(27·광주시체육회)은 평영 100m(22일), 200m(25일), 50m(27일), 혼계영 400m(28일) 종목에 출전한다. 백수연은 광주·전남 출신선수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선수로 꼽힌다. 올림픽에서 두 차례(2012, 2016년)나 뛰었고, 2년마다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는 2015년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번이나 출전한 바 있다.

‘한국 남자 접영의 기대주’ 김민섭(여수문수중·3년)은 23일 접영 200m에 도전한다.

김민섭은 지난 5월 성인 대표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물오른 기량

을 선보여 이번 대회 결과가 주목된다. 실제 2019 수영(경영)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남자부 접영200m에 출전해 1분58초1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은 바 있다.

반선재(광주시체육회)는 이번 대회가 세계수영선수권 데뷔 무대다. 그는 지난달 9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돋보이는 성적을 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km에서 57분53초로 주파하며 1위를 차지했다. 반선재는 제99회 전국체전 계영 800m 1위, 자유형 800m 3위, 자유형 400m 3위를 차지한 중장거리 선수다. 전남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남자수구는 그리스(15일), 세르비아(17일), 몬테네그로(19일)와 싸운다. 추민중(전남도 수영연맹), 정병영(한국체대), 한호진(한국체대)이 출전한다.

오희지(전남수영연맹)이 국가대표 수문장을 맡고 있는 여자 수구 대표팀은 헝가리(14일), 러시아(16일), 캐나다(18일)와 격돌한다.

/특별취재단 윤영기 기자 penfoot@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라라 봉 카르도 아쿠아틱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수영 개인혼영 여자 400m 예선에서 김서영이 역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예선 경기. 한국 우하람이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리우데자네이루 아쿠아틱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백수연이 혼련 도중 역영하고 있다.

지난해 ‘수영여제’ 리데키 꺾은 캐나다 럭 대반란 예고

새바람 일으킬 무서운 10대들

2년마다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예비 스타들의 기량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12일 광주에서 개막하는 2019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일찌감치 가능성을 인정 받은 ‘젊은피’들이 쟁쟁한 대스타들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자유형과 접영이 주 종목인 캐나다의 페니 올렉시액(19)은 이미 세계수영 팬들에게는 잘 알려진 선수다.

올렉시액은 열여섯 살이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자유형

올렉시액, 개인전 첫 메달 노려

호주 티트머스·러 콜레스니코프도

100m 결승에서 52초70의 기록으로 미국의 시몬 매뉴얼과 공동 금메달을 차지했다. 당시 100분의 1초까지 똑같은 기록으로 올림픽 수영에서는 16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 공동 금메달리스트가 배출되고, 매뉴얼이 흑인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여자수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화제가 됐다.

올렉시액은 2017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인 혼성 계영 400

m와 혼성 혼계영 4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에서는 여자 자유형 100m와 200m, 접영 50m 등에서 세계대회 개인전 첫 메달을 노린다.

캐나다의 테일러 럭(19)도 일찌감치 올림픽 무대에 올랐다. 역시 16세에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그는 단체전인 여자 계영 400m와 계영 800m에서 캐나다 대표팀의 일원으로 동메달을 수확했다.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팬퍼시픽선수권대회 여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는 ‘세계수영의 여제’ 케이트리 리데키(미국)를 꺾고 금메달을 따는 이변을 일으켰다. 럭은 1분54초44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



캐나다 테일러 럭

지했고, 리데키는 1분55초15로 이케에 리카코(일본·1분54초85)에게도 뒤처져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리데키가 경계해야 할 10대 선수가 또 있다. 호주 수영의 희망 아리안 티트머스(19)다. 티트머스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 종목은 여자 자유형 200m·400m·800m에



호주 아리안 티트머스

출전한다. 세계선수권대회는 부다페스트 대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후 티트머스는 기량이 급성장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FINA 쇼트코스(25m)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특히



러시아 클리멘트 콜레스니코프

여자 자유형 400m에서는 3분53초92로 쇼트코스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러시아의 클리멘트 콜레스니코프(19)는 세계기록까지 보유한 차세대 스타다. 현재 콜레스니코프는 롱코스(50m) 남자 배영 50m 세계기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45%) 18억7백8십만원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공장**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45%) 6억6천6백8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풍암동 1114번지 토지 : 1500.2㎡(453.811평) 건물 : 6759.99㎡(2044.897평) 감정가 : 65억2천3백5십만원 최저가 : 65억2천3백5십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